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매헌梅軒 선생의 시문학을 두고 당대의 문장가들이 평가한 글



권오신
작운공사람들 저자, 칼럼니스트

문장의 큰 흐름은 30년 주기로 바뀐다.

특히 20세기 이후부터 이런 흐름은 더 강렬했다. 매헌梅軒 선생의 문장은 당대는 물론 사후 400년 세월을 건너편 이 시대에도 울림으로 다가서는 명문장이어서 후대 문장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원인이 됐다. 의역(意譯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문장의 뜻을 살린 번역)에서도 당대의 문장 맛이 그대로 살려졌으니 문장이 갖는 힘을 알 수 있다.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신안동新安東 김조순金祖淳, 우의정右議政 이휘지李徽之,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상일權相一 예조판서禮曹判書 홍양호洪良浩와 같은 명사와 문신들이 매헌梅軒 선생을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詩와 글로써 흠모했었다.

매헌실기梅軒實紀엔 당시의 문신, 사대부, 문장가들이 올린 글이 편집되었으며 선생의 사작기엔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황경원黃景源, 좌승지左承旨 심기대沈基泰, 형조참의 김양근金養根 등 임진왜란 이후를 빛내었던 문신들의 글과 시詩, 부賦를 통해 한 시대를 품미한 임란 의병장, 대학자, 문장가로 조선 후기시대를 품미했던87분의 문신 명사(名士)들이 글로 기록했다.

매헌梅軒 선생의 7대손 모암공(慕庵公, 휘諱 학인學仁 1744~1784)이 격경으로 정조正祖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그 사적(史蹟)이 더 빛나게 되었으니 영예로울 뿐이다. 사후 148년이 되던 해였다.

정조(正祖, 6년 1782)는 통훈대부 시용원주부 권사민權士敏에 계당상관堂上官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경연잡찬관을 추증했다. 정조 8년(1784) “위국장의수성효충爲國倡義守城孝忠”이란 교지가, 그 2년 후에 충효정려忠孝旌闕가 내렸으며 정조 12년(1788) 후학을 가르쳤던 자리에 옥문사원이 창건, 제향祭享됐다. <자료출처: 권영휴權永休 강당講堂 상량문上樑文>

그즈음 매헌실기梅軒實記 건곤乾坤 2책이 발간됐다. 문중에 보관되었던 교지와 서지書誌는 후학들의 학술 연구를 위해 지난 2012년(유사有司 권창궐權昌勳) 안동국학진흥원에 위탁, 영구 보존에 들어갔다.

효충정려비(孝忠旌闕碑, 충신 효자 열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 고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 정문을 세우도록 임금이 표창하는 제도)와 비각碑閣은 정조 12년 경주시 내남면 두동리종택과 이웃한 자리에 세웠다.

<동국대학교 총장 김갑주金甲周/서산瑞山 유영로柳榮魯 발문跋文>
매헌 선생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조선왕조 시대는 무오戊午 갑자甲子 을축乙卯 을사乙巳 사회士禍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관직을 피하고 산림처사로 은거했으며 납죽 지방은 왜구가 자주 출몰하고 흉년과 역질이 겹친 시기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16~17세에 이

르려 경서經書 자사子史를 암송하는 등 통하지 않는 학문이 없었으며 충성심과 효행이 특히 지극하였다고 적었다. 36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바로 창의倡義, 200명의 의병이 형산강 모전산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초기엔 경주부慶州府 일원에서 복상하는 왜적의 보급로를 차단, 왜적 수백명을 참획斬獲했었다고 덧붙였다.

서산瑞山 유영로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서애 유성룡에게 올린 두루마리 수필상서문手筆上書文(1,400자)은 “안진경(顔眞卿) 당나라의 정치가이자 서예가, 그의 글씨는 근엄 완곡하며 특히 초서를 잘 써 당대 최고 서예가로 꼽혔음의 서첩書帖과 더불어 길이 세상에 전해져 사람은 죽었지만 정신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서문에 쓰신 것을 보면 이 역시 매헌 선생의 학문과 정신세계, 그 사상이 지순지고至純至高했음이 잘 나타난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정면으로 관통하셨던 매헌 선생을 평가하신 글은 당대의 명사이신 오리 이원익을 비롯 이조판서, 대사성을 지낸신 황경원, 예조판서 대제학 홍양호洪良浩, 지중추부사 권상일權相一 등 임란이후 조선사람과 의정부, 성균관, 육조六曹에서 이름을 떨쳤던 87분이 자필로 쓰고 남긴 기록이 전해진다.(한국국학진흥원 보관)

영의정 오리 이원익(1507~1634)은 선조宣祖가 주석한 어전화회에서 “매헌공梅軒公의 효성과 충의忠義, 고고한 학문을 알지 못했다가 차기(節記) 사실만을 기록한 상소문)를 보고 영남의 여러 어진 선비와 건줄 권사민이란 석자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승지承旨 안산完山 이점환李謙愼이 자신의 사작기事蹟記에서)

<가의대부嘉義大夫 예조판서 대사헌 대제학 홍양호의 글>
공공은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사숙한 제자이고 부친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의 효를 이어받았으며 어릴 적부터 문예명세文藝鳴世가로 이름을 떨쳤다.

1597년 8월 18일(선조 30년) 정유재란(1597년 8월부터 1598년 12월) 직전 어머니 축부인 하양허씨河陽許氏의 부음을 받고 진중에서 나왔다.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대로 장례를 지내고 3년 동안 음혈泣血로 슬퍼했다. 운문산雲門山 산록에 써진 어머니 묘소 여막에서 하루는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자 “너는 짐승 중에서도 영물靈物인데 어찌 어머니의 혼백을 놀라게 하느냐”고 꾸짖자 머리를 숙인 호랑이는 운문산으로 들어갔다고 정려기(旌閭紀)에 기록했다.

가의대부嘉義大夫 홍양호는 이어 “경상감사의 포계褒啓로 의병을 일으킨 공적은 증직이 내렸지만 효행이 또 이처럼 우뚝한 것을 보니 이른바 효자에게서 충신을 구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충과 효를 묶는 귀한 정려旌閭를 내리고 남의 자식들에게도 권해야 하겠다”고 정조에게 주청하니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기고 “특별히 정려를 명하셨다”고 했다.

<지중추부사 권상일權相一の 글>
사서오경四書五經 외에도 성률聲律 전진전前陣 천문지리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근사록近思錄 자경편自警篇을 즐겨 읽고 식량이 바닥난 날에도 책 읽기를 그만두지 않으셨던 매헌공梅軒公은 임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경인년庚寅年(1590)과 신묘년辛卯年(1591) 들어 밤하늘을 살피고는 “요성妖星의 빛이 외침外侵을 당할 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안 청년들을 시집 장가를 가게하고 노복들에게도 짙을 지어주었다고 적었다.

<좌랑佐郎 안동인安東人 김양근金養根의 글>
아아- 매헌공이 화왕성火旺城을 지켜 왜적을 막았는데 이것이 어찌 영남 칠십 고을만이 그 공렬功烈을 입었다고 하겠는가? 아깝

도다. 후손마저 선조를 천양關揚하는데 미흡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적막하게 두었던 말인가.

<안동인 권보의 글 1773>
회재晦齋를 사숙한 공공은 충의로 공적을 세웠으며 문장은 동경東京을 놀라게 했다. 그곳은 예부터 어진 분과 문장가가 많은 고을인데도 공의 학문은 더 빛났으며 위열衛烈과 의행懿行이 먼저 긴 책상자 속에 묻혀서 포상의 은혜를 입지 못함은 어찌 된 일인가.

<송록대부崇祿大夫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의 글>

임란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전쟁의 패해가 극심했었던 경상좌도 상황을 적어 도체찰사 서애 유성룡에게 올린 수필상서문手筆上書文에 대한 어전御前 상황을 먼저 적었다. 도체찰사가 공의 상소에 대한 답서는 “나라 전체의 公事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이 소에 기록된 사안은 지금의 사세(勢勢), 나라의 돌아가는 일)로 보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고 자신이 참석했었던 어전(御前) 상황을 적어 주셨다. 또 시詩와 운문韻文 등 글재와 더불어 경주부慶州府尹 권태일權泰一이 적은 글도 덧붙였다.

경주부유이 公의 집에 이르러 탄식하기를 “그대는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도 산림에 은거, 성현의 글을 읽으니 君子라 이름만 하구려”라고 쓰는 등 1000자 분량의 문장론과 사적기를 썼다. 학문과 올곧은 성품은 사숙한 회재晦齋를 따르고 아버이를 섬기는 효도는 부친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을 뛰어넘는다고 덧붙였다.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심기대沈基泰의 정려기旌閭記 1784>
경상도 안렴사按廉使로 갔을 때 경주부윤의 장계로 매헌공의 글재와 어머니 묘소 여막에서 호랑이를 쫓은 감동 효행, 그리고 의병장으로서의 공적을 알았으며 임진왜란 동안 의병을 일으킨 실제 자취는 류사예柳西厓가 손수 쓴 책에서 자세히 실려있고 여묘를 살 적의 순수한 효행은 권부학權副學의 기록으로, 정려를 받을 때 그 시말은 당시 어전御前을 지킨 홍시랑洪侍郞이 넓혀 기록했다고 적었다. 자신은 글을 잘하지 못하니 다시 어찌 감히 덧붙이겠는가. 애오라지 세상에 드른 감동을 받았다.

<대광보국송록대부 영의정 이휘지李徽之의 정려기旌閭記 1784년>
글과 천문에 능했던 공이 1591년 별의 형세를 보고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크게 탄식했는데 그 다음 해 과연 그러했다. 책과 시詩를 쓰다가 왜구의 침략 소식을 듣고 개연히 일어나 문도와 제자들로 의병을 일으켜 형산강 모전산 첫 전투에서 예봉을 여지없이 꺾어 적의 복상을 좌절시켰다. 공을 세우고도 스스로 공을 내세우지 아니함은 광망우당郭忘憂堂과 같고 의병을 일으킨 시기는 조종북趙重皐와 가깝고 나아가서는 국난을 뚫으로 막고 물러나서는 지성으로 어머니를 섬겼으니 동래부사 송전국 송상헌宋象賢도 저승에서 탄식할 것이다.

<경부부윤 이원조李源祚/ 여강인驤江人 이해상李海祥의 글 1850년>
임진왜란이 평정되고 아홉 명의 여사화御賜花를 쓴 제자를 길러 낸 사이 두릉조당杜陵草堂 태평시노인太平時老人으로 늙으셨다. 현산매각(山梅閣, 현산은 연양의 조선시대 지명)의 현감 벼슬을 사양하고 원인(完人, 덕행이 완전한 선비)의 길을 걸으셨다. 100년 뒤에야 진중에서 이룬 공적이 마침내 정문旌門으로 내리니 국은國恩의 우악(優渥, 두텁게 우대함)함ियो. 조정과 사림에서나 깊이값음이 예에 맞았다.

상량문上樑文에선 앞으로 들보를 드니 운곡사雲谷祠가 앉아있고 西를 향해 들보를 드니 단석산斷石山이 높이 떠 있다. 천고영웅千古英雄 높은 기품 왜적 기운이 숙여지다. 남남을 향해보니 망부암望夫巖 아래에 눈물 고여 소포가 되고 성벽에 올라 싶을 태우며

죽음도 겁내지 않았다. 북북을 향해 들보드니 도덕산道德山이 열려있다. 위아래로 들보드니 적병도 물러가고 사해四海가 맑았으니 봄을 따라 옥수玉水가 새집에 비추었네.

경주부윤慶州府尹은 특히 동도東都의 이름난 이곳에서 충효를 본받고 나라를 일으키는 인재가 이어날 것이라고 썼다.

<현풍玄風 유학幼學 엄우광嚴友光이 어사御史 유의양柳義養에게 올리는 글 1775년>

현풍玄風 유학幼學 엄우광嚴友光 등은 삼가 재배하옵고 수의합하(繡衣閣下, 비단옷을 입은 고귀한 분, 어사를 가리킴)에게 글을 올리나이다. 경주 사옹원주부 권사민은 학문은 사람을 빛내었으며 나라를 보전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장에서도 다른 의병과는 달리 수급(首級, 싸움터에서 얻은 적군의 머리)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군량이 필절乏絶한 상황에 이르렀을 땐 가산家産을 털어 의병들의 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선 충의공忠翼公곽재우에게 신묘한 작전계획을 내어 왜적을 여러 번 물리쳤으며 그 사작은 망우당 창의록義錄에 실려 있습니다.

도체찰사에게 올린 1000자의 임란 상서문에선 관리는 공명절조名帖을 팔고 백성은 한되박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식까지 팔아넘기는 실상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임란을 정면으로 관통한 경상좌도의 실상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니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절의節義는 백성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합하閣下께서는 권사민의 창의倡義 활동과 충절을 드러내서 생생들에게 울적하게 쌓인 여론을 바르게 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영돈녕부사領敔寧府事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신안동 김조순金祖淳의 시詩>

경주에는 옛날부터 어진 사람이 많았으니 그 뉘가 처사 매헌공만 하였으리
성인이 남긴 말이 어김이 없느니
나라에 충성함은 효도부터이라
팔공산 아래 천덕을 정했으니
의사의 그 이름은 초록도 울리라
사나운 오랑캐 놀라지 말라
곽장군郭再祐 같은 이가 여기도 있다.
산에는 달빛 차고 나무 그늘 어두운데
상장 집고 수절(首經, 성제가 머리에 두른 삼으로 만든 띠) 무서운 맹수도 머리 숙여 가는 것은
정성이 지극하면 미물도 아느니라.
빛나는 홍살문 나라 은혜 있었으니
권공의 맑은 소리 백세에 남아 있다.
조령鳥嶺 남쪽에서 글 읽는 사람들이
누군들 두릉촌杜陵村을 공경치 않으랴.

<송록대부 이조판서 서자유빈객生子右賓客 민치상閔致庠의 발문跋文>

매헌 선생의 후손(휘諱 필환必煥)을 통해 실기實記와 유고遺稿를 보고 일성록(日省錄, 정조가 세자 시절부터 일기 형태로 남긴 글) 등 역사에 실린 기록을 보니 그의 시詩와 글은 늙은 선비의 신음하는 글이 아니요, 그때의 할 일을 적절하게 말하였고 남을 감동시킬 명문장이었으니 학문의 높은 경지를 알 수 있었다. 증직을 내리고 정려가 내린 것은 그의 자손들로서 힘은 일ियो. 공의 뜻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문序文을 사양치 않은 것은 나라에 보국하고 아버지에게 효孝를 다한 공의 그 고상한 뜻을 높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발문跋文 말미에 붙였다.

임진왜란 전이나 이후에도 한결같이 시골에 묻혀 사는 매헌 선생을 두고 당대의 정승 판서 문신 문장가 등 87명이 쓴 시詩와 부賦, 여섯 글자를 한 글귀로 짓고 글 끝에 운을 다는 한시체), 책 발문을 보내왔다.

이처럼 극찬한 예는 조선과 고려를 통틀어 흔치 않는 사례다. 종보의 편집 여건으로 인해 10분의 글도 줄이고 간쥘린 문장만 실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5월호에도 계속됩니다>

양촌 문충공 616주년 부조묘 기신제

음력 2월 14일 자정에 봉행

시조후 16세손인 추밀공과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휘 근近)의 기신제忌辰祭가 휘일諱日인 음력 2월14일, 양력 3월13일의 초시각 자사子時, 즉 3월 12일 23시가 시작되면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로 377-16의 부조묘不祧廟에서 봉행되었다. 부조묘는 4대의 봉사奉祀 기간이 지나도 체전禮遷되지 않는 불천지위不遷之位을 모신 사당을 말하며, 이를 일반 가묘家廟와 구분하여 별묘別廟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은 은전을 과거 왕명으로 특별한 국가유공자에게 내려 영구히 기제사를 지내게 한 것인데 이를 부조지전不祧之典이라고 부른다.

이날 낮에는 중추仲秋의 기운이 완연하였으니 제사 시작에는 영상 4.5도 정도의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2시간 전부터 서울 양주 상주 충주 음성 등 원근 각지에서 22인의 후손이 도착하기 시작하여 훈훈한 분위기였다. 권오섭權五燮 관리소장은 미리 제사에 온 것을 데우고 도착 후손마다 커피와 다과를 배품었다.

문충공종중 권오협權五協 총회장은 지난달 2월26일 충주에서 개최한 총회에 원근 각지에서 많은 종원이 참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 또 지난 해에 비해 올해는 날씨도 평온한데 정



초현관 권혁인權赫忍

간공簡公 종회장 권병돈權炳敦 회장을 비롯하여 종중 회장단 종무위원 종원 여러분이 양촌 선조님 기신제에 많이 참여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

취 입고 모두 사당으로 이동하였다. 현관 및 집사자 분정은 다음과 같았다.

초현관 권혁인權赫忍 종중 총제공계, 아현관 권태수權泰洙 수석부회장 및 문경공종회장, 종현관 권오석權五石 부회장 및 제간공종회장, 진설 권오섭權五燮 관리소장 문경공계, 집례 권세환權世煥 부회장 총제공계, 대축 권오달權五達 안숙공계, 봉향 권오찬權五瓚 문경공계, 봉로 권순각權純珪 총제공계, 봉작 권순복權純福 문경공계, 전작·도기到記 권혁중權赫重 사무국장 총제공계.

집례의 창홀에 따라 제례가 시작되고 제자손은 엄숙히 제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음복례가 끝나고 모든 종원은 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음복주를 곁들인 제사음식으로 식사하였다. 권오협 회장은 늦은 밤까지 참제한 권병돈 정간공종회장을 비롯한 모든 현관과 집사 종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아현관으로 한작한 권태수 수석부회장은 신임 문경공종회장 취임 인사를 겸하여 문중 일에 더욱더 열정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지파 문중의 참재원은 총제공계總制公系 7인, 문경공계文景公系 7인, 제간공계齊簡公系 3인, 안숙공계安肅公系 5인이었다.

글 : 권오달, 사진 : 권영배·권오섭

행주서원,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 봉안식 거행

행주서원(원장 권정택)에서는 권율 도원수 영정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2월 28일 행주서원에서 국가표준영정에 대한 영인본을 제작하여 가공사(紀功祠)에 모시는 봉안식을 거행했다.

권정택 원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추밀공과종회 회장, 권용주 매현공 종중 고문, 권경일 추밀공과 석주공 종중 회장, 강홍강 고양향교 전교, 김광주 충장사 제전위원장, 권행원 편집국장, 이현규 유도회장, 정영애 여성유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정택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율 도원수 영정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감개무량하여 봉안식을 봉행하게 되었다. 규격은 일본의 70%로 제작했다. 기존 무인상의 장군영정(영인본)은 사전에 이안 고유제를 지냈다. 행주대첩과 이치대첩 등 권율 도원수의 공훈을 생각하며 축문도 직접 작성하고 7인시도 지었다고 말했다.

杏洲書院 晩翠堂 忠莊公 權慄將軍(행주서원 만취당 총장공 권율장군)
拜訪將軍佳節時 (배방장군가절시) 권율 장군을 경방하니 때는 호시절인데
高陽深谷爽風吹 (고양심곡상풍취) 고양 깊은 골에 상쾌한 바람이 부는구나
秀城梨峙共勝利 (독성이지공승리) 독성산성과 이치 싸움에서 모두 우리가 승리하고
隆景秀家皆敗馳 (용경수가개패치) 적장 용경수가가 모두 패해서 도망갔도다
血海血江攻敵極 (혈해혈강공적극) 피가 바다요 강이 되도록 적을 공격하기를 극렬히 하니
顧前顧後走天涯 (고전고후주천애) 적은 앞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하늘 끝으로 도망갔도다
幸州大捷揮青史 (행주대첩휘청사) 행주산성 대첩은 청사에 휘황하게 빛나고
忠莊丹忠萬世垂 (충장단충만세수) 충장공의 붉은 충성은 만세에 드리우리로다

권행원 편집국장